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절차,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.

피해자 결정 절차

01

피해자

거주지 관할 시.도 신청

신청서·임대차계약서
경·공매 관련 서류 등

→

02

국토교통부

접수 · 피해사실 조사

주택 가격·실태·권리관계
임대인 채무 등 조사

→

03

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

심의 · 의결

전세사기피해자등
해당 여부 심의

→

04

국토교통부

결정 · 송달

피해자 결정 결과
신청인에게 통지

구미시의 신청 단계 지원과 행정·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.

※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~제14조 기준

구미, 경북에서 신청은 가장 많지만 인정률은 낮습니다

2026년 8월 말 기준 | 경북도 자료

경북 전체 신청 **1,671건** 중 구미 **579건 (34.6%)**

구미 신청

579건

경북 시·군 중 최다

구미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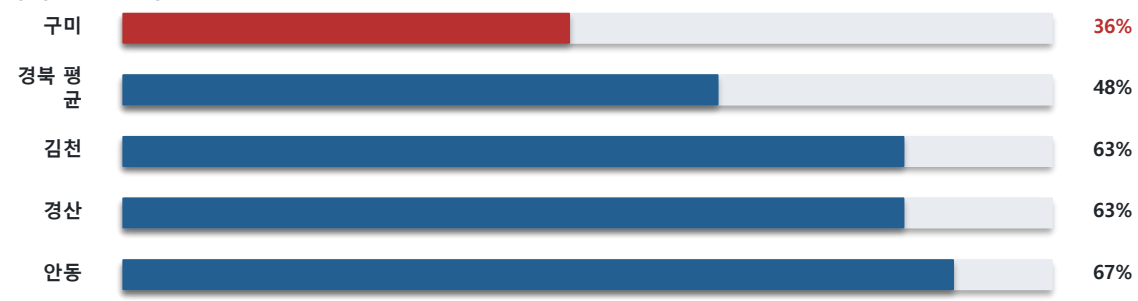
207건

구미 인정률

36%

경북 평균 48%

피해 인정률 비교



신청은 가장 많은데 인정률은 왜 상대적으로 낮은가?
원인을 파악하고 신청·입증 과정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.

구미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

2026년 5월 특별법 개정 반영

01

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

피해 규모·유형·피해주택
현황과 인정 과정의
어려움 파악

02

전세피해 및 예방 지원센터 설치

상담·신청·법률·주거·금융 연계
계약 전 예방상담 확대
특별법 제11조

03

피해주택 긴급 안전·생활안정 대책

단전·단수·소방·승강기 관리
공공위탁·비용지원 검토
특별법 제28조의2

2026년 5월 특별법 개정 반영 | 피해주택 관리·비용지원 조례 제정 추진